

지역 매아리

부안소방서, 초등생 어린이 대상 '불조심 주제 작품 공모전' 실시

제70회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부안소방서가 오는 24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2017년 불조심 주제 작품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화재가 급증하는 계절인 겨울철을 맞아 불조심을 소재로 한 작품 공모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화재 예방의식을 높이고 학교와 가정 등 일상 생활에서 불조심을 생활화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소방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마련됐다.

공모 작품은 불조심을 주제로 한 포스터·그리기·표어이며, 소방서에 접수된 작품을 심사해 최우수작을 선별, 시상식과 함께 소방청사 등 공공장소에서 작품 전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안=이옥수기자

고창서, 비우예방 자율토론회 가져

고창경찰서 청문감사실이 최근 일부 경찰의 일탈로 인해 방상 및 비위보도가 연일 계속 되면서 조직원의 사기가 저하 될 것을 우려하여 격려 및 비위예방을 논의하기 위한 자율 토론회를 가졌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다수의 경찰관들이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일부 일탈직원들로 인해 경찰의 명예가 허우적임에 묻혀 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함에 따라 나부터 변화해야 한다며 현 상황에 대해 기탄없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서, '베스트 살림꾼' 선발 표창

부안경찰서(서장 이동민)는 8일 경찰서장실에서 경찰서장, 각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부안경찰 베스트 살림꾼을 선발해 표창을 수여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에 충실하고 현장 경찰관 지원 업무에 적극 기여한 직원들을 선발해 포상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부여하려고 추진하였다.

인사 교육 업무의 적극 추진으로 직원 내부민족도 향상에 기여한 유공으로 경무계 김용현 경사와 지역경찰 행정업무 지원에 기여한 유공으로 생활안전계 오보람 순경을 선발해 각각 경찰서장 포상 휴가증과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부안=이옥수기자

고창한우, 국민 만찬상 올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만찬 자리에 고창한우 갈비구이 선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내외가 지난 7일 방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하는 국민 만찬의 메뉴에도 관심이 쏠렸다.

국민만찬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호를 고려하고, 한국이 가진 콘텐츠로 우리민의 색깔을 담으면서도 미국 정상의 기호도 함께 배려하려는 의미를 담았다. 그 의미 있는 자리에 고창에서 생산된 한우 갈비구이가 만찬으로 선택됐다.

국민 만찬 핵심키트로 선택된 지역인 고창군은 FTA 대응과 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한우 번식기반 유지와 개량축진을 위해 민선6기 공약사업 일환으로 한우 명품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고창군은 등록 및 선정심사, 수정관리, 우량장액 공급 등의 개량 사업을 통해 고급육 체계 구축으로 한우산업 활성화 및 브랜드 육성을 통한 안정적 소득기반 전략으로 2018년까지 5년 동안 총 15개 사업 43억원을 투입해 고창군 한우 명품화를 기반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한우 명품화 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한 결과 한우 고급육 출현율(1등급



국민만찬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호를 고려하고, 한국이 가진 콘텐츠로 우리민의 색깔을 담으면서도 미국 정상의 기호도 함께 배려하려는 의미를 담았다.

이상)이 2014년에 60%에서 올해 현재 70%(증10%)까지 상승하는 효과를 거뒀으며, 한우개량 및 개체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내년에는 70%까지 높여 한우농가 소득향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고창 한우가 국민만찬 메뉴 중 하나로 선정되어 영

광고 의미 있는 일"이라며 "그동안 한우 명품화 사업을 추진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한우 명품화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체계화시켜 추진하여 더 품질 좋은 한우를 전국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 신림 입전마을 '생생마을 만들기 UCC 전국공모전' 우수상 수상

고창군 신림면 입전마을이 지난 1일 개최된 '2017년 전북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함께하는 생생마을 이야기라는 주제로 진행된 '생생마을 만들기 UCC 전국공모전'에서 농촌경관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신림면 입전마을은 방장산 산기슭에 자리한 산골마을로 전북도 삼락농정의 일원인 생생마을 만들기 기초단계 사업을 시작으로 '불닭에 속삭이는 햇살같이'를 주제로 다양한 마을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UCC 공모전 영상에서는 주민들이 마을 담당 전체를 몰입으로 촬영하며 주민 스스로도 보수를 할 수 있도록 몰입을 쌓는 교육을 받은 영상을 담았으며 몰입을 쌓고 난후 같이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화합하고 행복해지는 마을주민 모습을 영상에 담았다.

또한 입전마을은 돌을 자원으로 주민들이 의기투합해 함께 마을 담당 전체를 몰입으로 쌓아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킨 성과로 지난 7월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색깔마을상을 수상했으며 이번 UCC공모전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사업성으로 각종 시상식에서 패거리를 거두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생생마을 만들기 UCC 전국공모전을 통해 그동안 고창군에서 추진해왔던 마을만들기 성과 홍보가 SNS 및 유튜브에 게시과정에서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고창의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는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농업기술센터 국산콩 생산성 격차 해소 육성사업 평가회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7일 '국산콩 yield gap(생산성 격차) 해소 시범사업 평가회'를 가졌다.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7일 '국산콩 yield gap(생산성 격차) 해소 시범사업 평가회'를 가졌다. 칠보농업협동조합 공선별장에서 열린 평가회에는 신외공 작목반과 공재배농업인 70여명이 참석했다.

평가회에서는 신외공 작목반과 공재배농업인 70여명이 참석했다. 기술센터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정읍시와 신외공 작목반 및 칠보농협이 2017년부터 2018년 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한다.

공 특산단지 육성과 농업 기계화를 높여 생산비를 절감함으로써 지역별 생산성 격차를 극복하는데 목적이 있다.

관련해 올해는 휴림 복토 파종기와 이식기 등의 생력 농기계와 선별장 정선기 선별기 소포장기 등의 유동기계 지원으로 기계화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어 2018년에는 생산자·유동·가공업체 연계를 통해 관광과

정읍=김대환기자

부안지역 예술인들의 기량 한눈에 부안예술제 10일 개막

공연·전시·체험 등 프로그램 다채

부안지역예술인들의 한 해 동안 활동을 다듬어 내놓은 제16회 부안예술제가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열려 부안의 가을을 수놓는다.

올해 16회째를 맞는 부안예술제는 '행복한 부안 예술로 꾸꾸자'를 기본취지로 다양한 프로그램(공연·전시·체험·발간 등)으로 치러져 대도시 예술제를 능가하는 의욕적이고 역량이 있는 순수 예술인들의 진치가 펼쳐진다.

오는 10일 개막식에서는 예술창작활동을 통해 예술단체와 예술인을 육성하고 예술인의 자변화대를 위해 공이 큰 지역예술인에게 주는 부안예술문화대상 시상식도 열린다.

올해는 문인협회 부안지부장을 2회 역임한 김형철씨가 수상하며 공

로배 수상자로는 이형민(국악협회), 김병석(문인협회), 전정관(미술협회), 최규석(사진작가협회), 황수경(연예예술인협회)씨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어 제3회 부안마실트르트가요제, 제22회 부안군민을 위한 열린음악회, 부안국악제, 제23회 한국미술협회부안지부 회원전, 제7회 한국사진작가협회 부안지부 회원전, 한국문인협회 부안지부회원 시화전, 제20회 청소년 예술제 우수작품전시회, 부안문예창작반의 시화 전시회 등이 열린다.

특히 캘리그래피, 수공예파우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12일까지 부안예술회관 공연장 및 전시관에



서 진행된다.

부안예술회관에서는 부안예술제를 축하하는 의미로 포스댄스컴퍼니의 핀타스티 부안 댄스퀸을 선보인다.

한국예총 부안지회 김종문 지회장은 "그간 갖고 있던 예술인들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온 군민들이 소통하며 화합하는 예술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시, 제1금고 농협은행·제2금고 전북은행 선정

정읍시(시장 김생기)는 올해 말로 시 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8년부터 3년간 정읍시 금고를 맡게 될 금융기관으로 제1금고로 (주)농협은행을, 제2금고로 전북은행(주)을 각각 선정했다.

시는 지난 9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나누어 금고를 운영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일반 경쟁방법에 부쳐 농협은행과 전북은행으로 부터 금고제안 신청서를 접수 받았다.

금융기관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한

평가를 통해 금고를 지정하기 위해서 시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금융기관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실적 및 협력사업 추진계획 등을 기준으로 2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심의 의결했다.

시 관계자는 "11월중 금고지정 공고 및 통지 후 20일 이내에 약정서를 체결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품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결핍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번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짙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GIFT SET 1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 | 750ml 2ea, 잔 1ea, 오픈너/12%

GIFT SET 3 | 750ml 1ea/12%

GIFT SET 4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 | 375ml 5ea/13%

GIFT SET 6 | 500ml 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픈너

GIFT SET 일반 | 375ml 2ea/13%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